

申叔舟의 爲國愛民 樣相과 漢詩 研究*

金 榮 洙**

Ⅰ 국문초록 Ⅰ

保閑齋 申叔舟(1417~1475)는 세종부터 성종까지 6대를 섬긴 인물이다. 그는 세종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고, 세조에 의해 중용된 인물이다. 조선 초기 왕위 계승이嫡長子가 아닌 定宗·太宗·世宗으로 이어졌고, 세중에 이어 文宗이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하면서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2년 3개월의 짧은 재위기간으로 인해 端宗이 문종의 장남으로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다. 宗室과 대신들 간에 국정운영 방식의 이견으로 갈등하다가 首陽大君이 癸酉靖難(1453)을 일으켰고, 단종이 世祖에게 禪位の 형식으로 왕위를 내어준다. 계유정난은 집현전 출신 학사들을 명분과 현실 추구의 두 파로 갈라놓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후 端宗復位사건으로 명분을 선택한 死六臣의 忠節논의와 현실을 선택한 이들의 變節논의가 역사에 중요한 화두로 남는다.

肅宗대에 와서 단종의 복위가 이루어지는 端初는 세조의 ‘當代의 亂臣이요, 後世의 忠臣’이라는 말이었다. 보한재는 변절자라는 불명예에 시달린 인물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시대상황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한재는 學問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고, 또한 中庸의 처신으로 자신을 절제한 인물이다. 國政에 임해서는 각 분야에 정통해 직무에 대한 강한 自矜心을 지녔다. 語學에 뛰어나고 외교와 국방의 현안에 대해 멀리 내다보는 叡智力을 갖추고 대비하였다. 事大와 交隣, 懷柔와 羈縻를 적절히 구사한 그는 특히 對日외교에서 고려시대의 鄭夢周와 함께 일본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한 인물이었다.

보한재의 내면을 그의 漢詩 작품을 통해 분석했다. 1) 그는 明良相遇의 時運을 희구한 인물이었다. 2) 職務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예지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3) 보한재는 李施愛의 난을 겪고 성종의 士林政治를 보면서 功業에 대한 회의와 인생무상을 토로한다. 보한재의 모습을 추적하면서 功過를 통해 그의 본 모습을 재구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주제어] 申叔舟, 世祖, 癸酉靖難, 忠節, 變節, 功臣, 事大交隣, 士林政治, 端宗復位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 youngbearlove@hanmail.net

— 목 차 —

I. 서 론	IV. 문학사적 위치
II. 시대적 배경과 申叔舟의 面貌	V. 결 론
III. 漢詩 분석	

I. 서 론

保閑齋는 4대 功臣에 책봉된 인물이다. 그만큼 그가 살았던 시대는 격변기였다. 1453년 수양대군이 안평대군과 김종서 등을 제거한 계유정난의 靖難功臣은 모두 43명이었다. 1등 공신에 수양대군·한명회 등 12명, 2등 공신에 양정·신숙주 등 11명, 3등 공신에 김치의·성삼문 등 20명이었다.¹⁾ 1455년 금성대군·혜빈 양씨 등을 유배보내고, 단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오른 세조는 佐翼功臣 44명을 책봉했다. 이때 신숙주는 1등 공신에 책봉되었고, 성삼문은 3등 공신에 책봉되었지만, 1년 뒤 단종복위 운동의 실패로 인해 성삼문은 3등 공신에서 삭훈되었다. 한영우는 ‘세조의 專制權 강화에 불만을 품은 일부 儒臣들은 세조를 몰아내고 端宗을 복위시켜 官僚支配體制를 구현하려 하였고, 단종 복위의 표면적인 명분에는 세조의 不義와 篡奪에 대한 저항이라는 大義가 내세워지고 있었다’고 했다.²⁾

1468년 세조가 승하한 후, 예종대에 南怡장군의 역모를 평정한 翊戴功臣은 37명이었다. 1등 공신에 신숙주가 포함되었다. 1471년 성종은 자신의 즉위에 공헌한 사람들을 佐理功臣으로 73명을 책봉했다. 이때 신숙주는 1등 공신에 포함되었고, 그의 아들 申漣(4남)과 申浚(5남)도 4등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또한 좌리공신 4등에는 한명회의 아들 韓堡와 정인지의 아들 鄭崇祖도 책봉되었다.³⁾ 4대 공신 책봉 중 정난공신에 2등으로 책봉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등 공신이었다. 2등 책봉은 보한재가 당시 외직에 나가 있었던 것이 이유이지만 이후 그의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세조가 장차 크게 쓰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또한 집현전 출신들과의 관련성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

『論語』에는 詩와 정치, 학문과 실용에 대한 孔子의 견해가 있다. 공자는 “詩經 三百篇을 외우면서도 정치를 맡겼을 때에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 혼자서 처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다 한들 어디에 쓰겠는가?”⁴⁾라고 하면서 학문과 실용을 겸비한 선비의 자질을 언급했다.

『慵齋叢話』에는 보한재를 당대의 학자들과 견주어 비평한 대목이 있다.

1)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3, 56쪽.

2) 韓永愚, 『조선전기 사회경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3, 82~83쪽.

3) 신명호는 “공훈을 장려하기 위한 공신책봉은 좌리공신의 책봉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했다. 이를 통해 강고한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된 세조공신들은 훗날 사림세력과 격렬한 갈등을 빚으며 사회를 일으켰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역사적 사례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의 책, 95~96쪽.

4) 『論語』 「子路」. “誦詩三百，授之以政，不達，使於四方，不能專對，雖多，亦奚以爲.”

세종께서 처음으로 집현전을 설치하고 문학하는 선비들을 맞아들였는데, 高靈 申叔舟 · 寧城 崔恒 · 延城 李石亨 · 仁叟 朴彭年 · 謹甫 成三問 · 太初 柳誠源 · 伯高 李塏 · 仲章 河緯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모두 한때에 이름을 떨치었다. 근보의 문장은 豪縱하나 시에는 짧고, 중장도 대책문이나 疏章에는 능하나 시를 알지 못했으며, 태초는 천재로 夙成하였으나 지식이 넓지 못하였다. 백고는 맑고 뛰어나 英發하고 시도 精絶하였으나, 선비들이 모두 박인수를 集大成이라고 추대하였으니, 그는 經術 · 文章 · 筆法을 모두 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誅殺을 당하여서 저술한 것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영성은 四六文體에 능하고, 연성은 과거의 글에 精하였다. 그러나 高靈의 文章과 道德만이 일대의 宗경을 받았고, 그 뒤를 따를 사람은 徐達城 · 金永山 · 姜晉山 · 李陽城 · 金福昌과 나의 伯氏 뿐이다.⁵⁾

위에서 주목되는 것은 “而惟高靈文章道德 一代尊仰”이라는 표현이다. 집현전 학사들의 문장을 언급하면서 보한재에 대해 ‘文章과 道德이 일대에 존경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崔恒의 〈經書小學口訣跋〉에 의하면 正經(논어 · 맹자 · 대학 · 중용 · 예기)에 口訣을 다는 문제에 있어 보한재에게 『禮記』를 맡긴 기록이 있다.⁶⁾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각자의 所長에 따라 경전을 배분한 것이다. 성현이 말한 보한재의 ‘문장과 도덕’ 중에서 도덕이 ‘보한재의 人品’을 가리킨 것인지, 혹은 『禮記』가 禮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다룬 책이라 禮에 조예가 깊다는 것을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후대의 보한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해 상반되는 언급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조선왕조실록』과 문집들을 통해 보한재의 면모를 살피고, 한시를 분석하여 그의 본 모습을 재구하고자 한다.

II. 시대적 배경과 申叔舟의 面貌

1. 癸酉靖難과 世祖의 專制政治

鄭杜熙는 계유정난의 성공 요인으로 ‘내금위 무사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그들을 우익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文宗 재위시 ‘세조가 兵書의 편찬책임자가 되어 많은 집현전 학사들과 일을 하였는데, 정난의 핵심인물인 權擘 · 洪允成을 위시하여 成三問 · 河緯地 · 柳誠源 · 李塏 등이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⁷⁾

보한재는 癸酉靖難시 외직에 나가 있었다. 그리고 사육신사건 때 비록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들의 정상을 참작해 구제하는데 힘쓰기도 하였다.

5) 成俔, 『慵齋叢話』 권1, 『국역 大東野乘』 1책, 민족문화추진회, 1984 중판, 11쪽. “世宗始設集賢殿 迎文學之士 有如申高靈崔寧城李延城與朴仁叟成謹甫柳太初李伯高河仲章 皆擅名一時 謹甫文淵豪縱 而短於詩 仲章長於對策疏章 不知詩 太初天才夙成 而其覽不博 伯高清穎英發 詩亦精絶 然儕輩皆推朴仁叟爲集大成 謂其經術文章筆法俱善也 然皆被誅 其所著不顯於世 寧城精於四六 延城能爲科學之文 而惟高靈文章道德 一代尊仰 繼躅者徐達城金永山姜晉山李陽城金福昌及我伯氏而已.”

6) 崔恒, 『국역 太虛亭集』 권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7, 247쪽. 『詩經』은 鄭驥註, 『書經』은 鄭昌孫, 『禮記』는 申叔舟, 『論語』는 李石亨, 『孟子』는 成任, 『大學』은 洪應, 『中庸』은 姜希孟에게 명하여 구결하게 하였다.

7) 鄭杜熙,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일조각, 1983, 207쪽.

겨울에 세조임금께서 國亂을 진정하였는데 마침 공은 外職으로 나간 때였다. 그러나 공이 진작 비밀한 모의에 참여했다고 하여 輸忠協策靖難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손수 교서를 써서 이르기, ‘만리를 동행하며 사직을 위해 죽기를 맹세하였다.’라고 하였다.……여름에 成三問 등의 옥사가 일어나서 수백명이 연루되었는데 공에게 명하여 합동으로 심문하게 하니, 공은 정상을 참작해서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온전하게 살아난 자가 많았다.⁸⁾

崔楨鏞은 세조의 집권과 즉위의 양면성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16세기 사람세력이 정권을 주도하면서부터 세조정권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文宗實錄』·『端宗實錄』·『世祖實錄』 등의 편찬을 주도한 훈구세력은 세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라고 했다.⁹⁾ 보한재를 좌익1등공신으로 책훈하는 교서에는 두 사람(수양대군과 신숙주)이 명나라에 갔던 때에 사직을 위해 몸 바칠 각오를 다잡하던 의기투합을 회고하고 있다.

신숙주에게 頒敎하기를, “……卿은 식견이 달통하고 학문이 해박한데, 일찍이 가정의 교훈을 받아 충효를 마음으로 가지고, 본래 經國濟世의 재주를 지니어 문장을 餘事로 보았다. 처음에 세종께 知遇를 받아 드디어 兩朝에 발탁되었다. 내가 옛날 잠저에 있을 때에 외람되게 使命을 받아 당시 국가가 위태하고 의심스러운 때를 당하여 다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괴로움을 무릅쓰게 되었는데, 경이 이때에 참여하여 나를 보좌하고 肺腑를 내어 보여 정신과 志氣를 같이 하여 믿으니, 腹心으로 의탁하여 실로 忠誠하고 憤慨하고 慷慨하는 마음을 아울러 일으켰다.¹⁰⁾

최정응은 계유정난이 성공한 요인을 4가지로 든 바 있는데 문무겸전의 세조의 과감한 전략 등이 주효했다고 보았다.¹¹⁾ 『秋江集』에는 성삼문 등의 단종복위와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듬해 병자년(1456, 세조2)에 그의 아버지 성승 및 박팽년 등과 함께 상왕의 복위를 도모하고 명나라 사신을 청하여 연회하는 날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 집현전에 모여 의논할 때에 성삼문이 묻기를, “신숙주는 나와 사이가 좋지만 죄가 중하여 죽이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무사로 하여금 각각 죽일 사람을 맡게 하였는데, 형조정랑 尹鈴孫이 신숙주를 맡았다. 마침 그날 운검을 그만두게 하여 모의가 중지되었으나 윤영손이 이를 알지 못했다. 신숙주가 편방에 나아가서 머리를 감을 때에 윤영손이 칼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나아가니, 성삼문이 눈짓하여 중지시켰다.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세조가 친히 국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하니,

8) 『保閑齋集』 권17 부록, 李承召 撰, 「碑銘」. “冬. 世祖靖難. 適公出外. 然以公夙贊密謀. 賜輸忠協策靖難功臣號. 手批敎書云. 同行萬里. 誓死社稷. ……夏. 成三問獄起. 逮繫數百人. 命公雜治. 緣情詳議. 全活者多.”

9) 崔楨鏞, 「세조의 집권과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8, 1쪽.

10) 『世祖實錄』 권13, 세조 4년(1458) 6월 29일 을유.

11) 崔楨鏞, 「세조의 집권과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8, 155쪽. 첫째 그의 文武를 겸비한 책략과 兵法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둘째 의표를 찌르는 과감한 행동, 셋째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넷째 정국운영에 대한 불만세력-특히 집현전 출신 신료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성삼문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천하에 그 누가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거늘 어찌 배반이라 하십니까. 나리는 평소에 걸핏하면 周公을 끌어냈는데 주공에게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엔 두 해가 없고 백성엔 두 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고 하였다. 세조가 발을 구르며 말하기를, “선위를 받던 당초에는 어찌 저지하지 않고 곧 나에게 의지하다가 지금에야 나를 배반하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형세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나아가서 금지할 수 없음을 알고는 물러나서 한번 죽으려고 했지만, 공연한 죽음은 무익한 것입니다. 참고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은 뒷일을 도모하려 했던 것 뿐입니다.” 하였다.¹²⁾

사육신의 단종복위 운동은 계유정난의 과정을 답습한 양상이다. 성삼문이 보한재를 죽이려 했던 이유와 선위를 받던 당초에 저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주목된다. 위의 기록에는 단지 ‘신숙주의 죄가 중하다’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그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듯하다.¹³⁾ 동시에 보한재의 능력과 역량이 매우 컸음을 반증한다. 김정수는 사육신이 계유정난 당시 반기를 들지 못한 이유를 2가지로 들었는데 이는 성삼문이 세조에게 실토한 것과 유사하다.¹⁴⁾

池斗煥은 ‘세조가 세종·문종·단종으로 이어지는 宗法에 맞는 왕위 계승을 거스르면서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탓으로 朱子性理學 이념을 표방할 수 없었고, 따라서 世祖는 주자성리학 대신에 불교를, 夏·殷·周 三代의 王道政治 대신에 漢·唐의 霸道정치를 숭상하였다’고 하였다.¹⁵⁾

이승소가 찬한 「碑銘」에는 보한재가 세조를 보좌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직언보다는 諷諭로서 세조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다.¹⁶⁾ 이같은 자세는 다른 공신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공신 가운데 왕권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처형된 인물로는 楊汀과 奉石柱가 있었고, 亂行을 하거나 물의를 야기했던 인물로는 閔發·洪允成·鄭麟趾·鄭昌孫·黃守身 등이 있었다.¹⁷⁾ 그만큼 세조는 왕권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김용흠은 세조대의 정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12) 南孝溫, 『秋江集』 권8, 「六臣傳」, 成三問. “明年丙子. 與其父勝及朴彭年等. 謀復 上王. 期以詔使請宴日舉事. 會議於集賢殿. 三問曰. 申叔舟吾所善. 然罪重不可不誅. 皆曰然. 使武士各主所殺. 刑曹正郎尹鈴孫主申叔舟. 會其日罷雲劍. 謀中止. 而鈴孫不之知. 方叔舟就便房沐髮. 鈴孫按劍而前. 三問目止之. 及事覺被收. 光廟親鞠問之曰. 若等何爲反我. 三問抗聲曰. 欲復故主耳. 天下誰有不愛其君者乎. 我之心. 國人皆知之. 何謂反耶. 進賜平日. 動引周公. 周公亦有是. 三問之爲此者. 天無二日. 民無二王故也. 光廟頓足曰. 受禪之初. 曷不沮之. 而乃依我. 今背我乎. 三問曰. 勢不能也. 吾固知進不能禁. 退有一死. 然徒死無益. 忍而至此者. 欲圖後效耳.”

13) 이성무, 『재상열전 - 조선의 이끈 사람들 -』, 청아출판사, 2010, 51쪽.

14) 김정수, 「세조의 집권과 권력 변동」, 『백산학보』 99, 2014, 44쪽. 하나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정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15) 池斗煥, 『조선전기 儀禮연구 - 성리학 正統論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68쪽.

16) 李承召 撰, 「碑銘」, 『保閑齋集』 권17 附錄. “……世祖踐祚. 更新庶政. 公久管樞要. 從容將順. 常諷諭以沃其心. 未嘗賈直以售其名. 世祖益重之. 中罹國家多故. 人心危疑. 公與一二大臣. 同心協力. 上輔聖躬. 下濟時艱. 竭誠盡瘁. 以登至治.”

17) 崔楨鏞, 「세조의 집권과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8, 63쪽.

세조 왕위의 정통성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상과 정책의 연속성 여부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과학적 역사인식이라고 믿는다.……이와 같이 집권체제의 강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既得權者들의 반발에 대해서 세조는 강력한 왕권으로 이를 제압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세조대의 정치를 ‘무단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종대의 정치를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고 칭송해 마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세조대의 제반 정책이 세종대의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 측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¹⁸⁾

즉, 세조는 세종의 제반 정책을 계승 발전시켰음에도 왕위 찬탈이라는 명분에 입각해 차별한다고 본 것이다. 申東垓는 세조가 비판받는 이유로, ‘영남 사람과의 거두인 金宗直 파직사건과 死六臣 사건’을 들었다. 김종직은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弔義帝文」을 썼고, 이로 인해 戊午史禍가 일어났으며, 이 사회로 인해 김종직이 剖棺斬屍를 당하자 영남의 사람세력은 세조를 극단적으로 배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⁹⁾

세조는 죽기 전날 세자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째는 敬天事神이요, 둘째는 奉先思孝요, 셋째는 節用愛民이니, 네가 이를 유의하여 나의 명을 허물지 말라.”²⁰⁾고 했으니, 이 당부는 평소 그의 통치철학이었다. 이덕일은 “계유정난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수양이 왕위에 올라서는 안된다.”²¹⁾고 한 바 있다. 周公과 같은 처신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삼문이 국문을 당할 때 세조를 향해, “나리는 평소애 걸핏하면 周公을 끌어냈는데 주공에게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대든 것은 세조에겐 뼈아픈 일침이었다. 『韓詩外傳』에는 충신의 등급으로 大忠·次忠·下忠·國賊을 언급하고 있다.²²⁾

2. 君臣相遇와 變節是非

보한재와 수양대군의 만남은 豫讓과 智伯의 만남을 연상시킨다. 예양은 쯤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范氏와 中行氏를 섬겼으나 이름이 알려지지는 못하였다. 예양이 그후 지백을 섬겼는데, 지백은 그를 매우 존중하고 총애하였다. 지백이 趙襄子를 치자, 조양자는 韓氏·魏氏와 공모하여 지백을 멸하고 그 토지를 나누었다. 예양은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몸에 옷칠을 하여 문둥이로 가장하고 숲을 삼켜 목을 쉬게 했다. 아무도 몰라 보게 하고 친구를 찾아가니, 그 친구는 “자네의 재능으로 禮物를 바치고 신하가 되어 襄子를 섬긴 다음 기회

18) 김용흥, 「조선 세조대 정치를 보는 시각과 生六臣」, 『역사와 현실』 64, 2007, 236~242쪽.

19) 申東垓, 『조선의 왕과 신하, 富國強兵을 논하다』, 살림출판사, 2007, 142쪽.

20) 『徐四佳全集』文集補遺篇 권1, 碑誌類, 「文靖公韓公神道碑銘 並序」, “一曰敬天事神 二曰奉先思孝 三曰節用愛民 汝其體念 無壞我寡命.”

21) 이덕일, 『사화로 보는 조선역사』, 석필, 1998, 227쪽. 이덕일은 또한 성삼문이 3등공신에 책봉된 것으로 보아 정난 당시에는 그가 최소한 중립을 지켰다고 보았다. 225쪽.

22) 『韓詩外傳』 권4, “有大忠者 有次忠者 有下忠者 有國賊者 以道覆君而化之 是謂大忠也 以德調君而輔之 是謂次忠也 以諫非君而怨之 是謂下忠也 不恤乎公道之達義 偷合苟同 以持祿養者 是謂國賊也.”(도로 임금을 덮어주고 감화시키는 것을 大忠이라 하고, 德으로 임금을 조절하여 보필하는 것을 次忠이라 하며, 그릇된 것을 간언하고 원망하는 것을 下忠이라 한다. 그리고 公道가 義에 이르도록 힘쓰지 않고 구차하게 임금의 마음에 투합하고 녹봉만 받아먹는 것을 國賊이라 한다.) 그 예로 大忠에는 周公(成王), 次忠에는 管仲(桓公), 下忠에는 伍子胥(夫差), 國賊은 曹觸龍(紂)을 들었다. 주공은 吐哺握髮(一沐三握髮 一飯三吐哺) 고사의 주인공으로 7년간 조가 성왕을 보필하며 인재를 구한 성인이다. 『韓詩外傳』 권3.

를 봐서 죽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자, 예양은 “남의 신하가 되어 섬긴다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고 주인을 섬기는 짓이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후세에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주인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려는 것”²³⁾이라고 잘라 말한다. 두 마음을 품고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 보한재는 예양처럼 단호한 자세를 지니고 있다.

이같은 자세는 후일 사육신과 결별할 때 그가 수양대군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세종의 지우와 충애를 받았지만, 顧命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무는 ‘보한재가 端宗의 廢位를 주장하고 세조의 등극을 지지했다고 해서 變節者라고 낙인찍을 수 없다’고 했다. 死六臣이나 生六臣과는 분명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단종복위 시도는 표면적으로 忠·逆 시비로 과대 포장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한 쿠데타’로 보았다. 보한재는 大義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현실참여의 길을 간 것’으로 본 것이다.²⁴⁾

박은봉은 보한재의 變節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 즉 ‘맛이 쉬 변하는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 부른다는 것’과, ‘부인 윤씨가 남편이 절의를 저버린 것이 부끄러워 자살한 이야기’를 들었다.²⁵⁾ 사육신 옥사는 1456년 6월 2일에 일어났고, 부인의 죽음은 獄事보다 약 5개월 전의 일로 세조 2년(1456 병자) 1월 23일의 『세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李暨가 쓴 『松窩雜說』을 『燃藜室記述』에서 인용하면서 유사한 대목을 李光洙가 오독하고(혹은 창작), 『단종애사』에 묘사하면서 와전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녹두나물’(豆芽菜, 菹豆長音)이 ‘숙주나물’이란 이름으로 널리 퍼진 것은 적어도 19세기 이후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즉, 후대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와전된 것으로 보았다.²⁶⁾

『연려실기술』에는 『破睡篇』을 인용하여, “세조가 나라를 얻으니, 신숙주가 공신으로서 노산군의 왕비를 받아서 여종을 삼았다 하는데 이 말은 寒岡 鄭逵가 하였다.”²⁷⁾고 하였고, 『月汀漫筆』을 인용하여, “노산의 왕비 송씨가 官婢가 되니 숙주가 功臣婢를 삼아서 자기가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세조가 그의 청을 듣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鄭眉壽를 궁중에서 기르라 명하였다.”²⁸⁾고 한 기록이 있다. 이 두 기록은 좀더 명확한 출처와 정확한 해석을 요한다고 본다. 鄭眉壽는 문종의 딸인 敬惠公主의 아들로 그 아버지 鄭棕은 단종복위를 꾀하다가 賜死된 인물이다. 또한 단종비 송씨의 養子이기도 하다. 역신의 가족이라 연좌제에 적용되지만, 세조와 세조비 정희왕후의 보살핌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단종비 정순왕후도 세조가 淨業院으로 보내는 등 나름대로 배려를 했었고, 정순왕후는 만년에 조카인 정미수의 집에서 죽었다. 연산군 5년에 정미수는 승지로서 보한재의 『海東諸國紀』와 같은 북방 야인의 정보를 담은 책을 간행할 것을 상소하여 재가를 받는다.²⁹⁾

23) 『史記』 권86, 刺客列傳, 豫讓.

24) 이성무, 『재상열전-조선을 이끈 사람들-』, 청아출판사, 2010, 52쪽.

25) 광정식, 「신숙주부인전의 역사수용 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새국어교육』 83, 2009. 광정식은 “신숙주와 부인 윤씨의 심적 갈등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인 윤씨를 끝내 자결하는 절의의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신숙주의 변절을 매도, 질책하는 방향으로 부분적인 개작을 통해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았다.

26) 박은봉,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 책과 함께, 2007, 137~145쪽.

27) 『燃藜室記述』 권5, 「세조조고사본말」, 破睡篇, “光陵得國 申叔舟以功臣受魯山妃爲婢 此言寒岡鄭逵云.”

28) 『燃藜室記述』 권5, 「세조조고사본말」, 月汀漫筆, “魯山王妃宋氏 沒爲官婢 申叔舟以功臣婢受出 上不許其請 未久命養育鄭眉壽於宮中.”

보한재는 타계하기 1년 전에 성종에게 올린 상서에서 다음과 같이 앞날을 예측하는 언급을 한다.

영의정 신숙주가 상서하기를,……수년 이래로 銳進하는 선비들은 혹 남을 휘방하여 자신을 어질다 하고, 가혹하게 살피는 것을 공이라 여기며, 위에 있는 자는 불안하여 비방을 피하려 하고, 아래에 있는 자는 마음이 급하여 허물을 막으려 하여, 上下에서 이것이 풍속을 이루어 잠시라도 수월하고 구차히 편안하려 하니 진실로 이것이 그치지 않으면 장차 큰 폐단이 될 것입니다.²⁹⁾

이른바 士林政治를 예견하면서 성종이 잘 살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세조대의 공신 중심의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사림세력을 등용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3. 學問에 대한 열정과 文武兼全

保閑齋의 부친인 申櫓은 5형제를 두었는데, 신숙주는 그중 셋째였다. 보한재는 「家訓」을 지어 자식들을 가르쳤다. ‘操心·謹身·勤學·居家·居官·教女’ 등 6조목으로 구분하여 올바른 처신을 주문했다. 그는 ‘居官’조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된 자의 바른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무슨 일이든 태연하게 해낼 수 있다. 한 번 부정 한 일을 저지르면 남이 알까 두려워서 위축되고 부끄러운 마음에 어찌 명을 내릴 수 있겠는가, 마침내 교활한 아전들에게 약점이 잡혀서 하는 일마다 실패를 초래하니 자신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 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³¹⁾

보한재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꼼꼼하고 자세한 관찰을 통해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책을 무척 가까이했다. 『燃藜室記述』에 기록된 아래의 일화는 보한재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일 그가 세조편에 선 것을 비판하는 논거로 인용된다.

임금이 인재를 기르는 아름다운 일은 옛 임금들보다 뛰어났다. 집현전 선비들이 날마다 번갈아 숙직을 하는데, 그들을 사랑함과 대접의 융숭함을 사람들이 모두 瀛洲에 오른 것이라 견주었다. 어느날 밤 二更 쯤에 내시를 시켜 숙직하는 선비가 무엇을 하는가를 가서 엿보게 하였는데, 申叔舟가 바야흐로 촛불을 켜놓고 글을 읽고 있었다. 내시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서너 번이나 가서 보아도 글 읽기를 오히려 끝내지 않다가 닭이 울자 비로소 취침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서 담비 갖옷을 벗어 그가 잠이 깊이 들 때를 기다려 그 위에 덮어주게 하였다. 숙주는 아침에 일어나서야 이 일

29) 『燕山君日記』 권32, 5년(1499 기미년) 1월 19일 기묘.

30) 『成宗實錄』 권39, 성종 5년(1474 갑오년) 2월 6일 신유.

31) 『保閑齋集』 권13, 家訓 居官 第五.

을 알게 되었고, 선비들은 이 소문을 듣고 더욱 학문에 힘을 쓰게 되었다.³²⁾

李承召가 撰한 「碑銘」에는 “장성해서는 학문을 좋아하여 천하의 서책 치고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지식을 쌓은 것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말하면 시와 문장이 되어 바닷물이 넘실거리듯이 크게 분방하였고 속된 문장을 짓지 아니하니 당시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程式으로 삼았다.”³³⁾고 했다. 徐居正은 「保閑齋集序」에서, “그러나 어떤 이는 문장은 잘하나 政治는 잘못하며, 정치에는 우수하나 문장은 잘못 지어서 이 두 가지 양쪽을 다 겸하기가 어렵거늘, 이 두 가지의 능한 것을 겸해서 한 시대에 올린 자는 오직 高靈 申文忠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⁴⁾라고 하여 보한재를 문장과 정치의 양면에 능했던 인물로 보았다.

보한재는 세조 5년(1459)에 『兵政』을 편찬했는데 그 발문에, “신이 병조의 여러 장수들과 함께 직접 指授를 받아 將卒의 侍衛·聚會·鍊武·査閱의 모든 제도를 비롯하여 공문의 규격과 예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세히 정하여 앞으로 그것을 지키고 실천함에 있어 손바닥을 보듯이 어려움이 없게 되었으니, 이제 군사면의 급선무는 다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까.”³⁵⁾라고 하여 군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승소가 찬한 「비명」에는, “그러나 어찌 우리 文忠公이 하늘에서 온전한 재주를 부여받고 운수에 응해 태어나서 聖主가 등극하는 것을 도왔으니, 文謨와 武略으로 나가서는 將帥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운세가 다한 나라를 떠받쳐 태산처럼 편안하게 한 것만 같겠는가?”³⁶⁾라고 하여 文武를 兼全한 인물로 찬양하고 있다. 오종록은 보한재의 관직 경력의 3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그를 ‘文武兼全의 인물’로 추켜세웠다.³⁷⁾

계유정난(1453) 이후, 수양대군은 넷째 동생인 금성대군과 혜빈 양씨 등 궁궐 안의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단종의 선위 형식을 통해 왕위에 오른다. 세조 4년(1458) 6월 29일에 세조는 보한재에게 좌익1등공신을 책훈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피력한다.

申叔舟에게 頒敎하기를,……경이 이러한 때에 관직이 納言의 우두머리로 일을 주선하는 것이 모두 그 事宜에 알맞았고, 일을 處置하는 것이 모두 법에 합당하였다.……아아! 君臣이 서로 만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로 어려운데, 心德이 이미 같아 功業을 期必할 수 있었다. 경은 管仲처럼 羽翼의 도움을 주었고 나는 昭烈처럼 魚水의 즐거움을 이루었으니, 길이 ‘돈독하게 생각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

32) 『燃藜室記述』 권3, 세종조고사본말, 『筆苑雜記』.

33) 李承召 撰, 「碑銘」, 『保閑齋集』 권17, 附錄. “自幼穎敏俊偉. 人見之者知其爲大器. 及長嗜學. 於天下書. 靡不涉獵. 積之既厚. 故發而爲詩文. 汪洋大肆. 不作俗下文字. 時輩相傳以爲程式.”

34) 徐居正, 「保閑齋集序」, 『徐四佳全集』文集 권5, 昨晨社. “然或長於文章而短於政事. 優於政事而拙於文章. 之二者難於兩兼. 兼二者之能而鳴于一代者. 其惟高靈申文忠公乎.”

35) 『保閑齋集』 권16 題跋, 兵政跋. “臣叔舟與兵曹諸將. 親承指授. 凡將卒之侍衛聚會. 鍊閱規度. 以至文移格例. 莫不詳定. 承守奉行. 如指諸掌. 至是而政之於兵. 可謂先所務矣.”

36) 李承召 撰, 「碑銘」, 『保閑齋集』 권17 附錄. “曷若我文忠公天賦全才. 應運而生. 登翼聖主. 文謨武略. 出入將相. 扶國步於斯蹙. 而措之太山之安者乎.”

37) 吳宗祿, 「신숙주의 군사정책과 宰相으로서의 經綸」, 『역사학논총』 34, 2003, 171~174쪽. ‘첫째, 정예 학자관료가 맡는 文翰職에 지속적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 단종 연간부터 빠른 속도로 승진을 거듭하였다는 점이다. 세번째, 국가의 軍國機務에 매우 중요한 體察使와 都體察使 직책을 여러 차례 맡았다는 점이다. 직접 군대를 지휘하여 여진 정벌을 수행한 것은 신숙주가 유일하였다.’라고 하였다.

에 크게 보이주는 恩典을 거행한다. 이에 佐翼一等功臣으로 策勳하고, 그 부모와 처에게 爵을 주며, 宥赦가 永世에 미치게 한다.³⁸⁾

金宗直의 「保閑齋集序」에는, “공은 풍채가 시원스럽고 식견이 드넓어 벼슬길에 몸담은 이래로 廟堂에 오르기까지 평일에 온축한 바를 가지고 펼쳐 經濟의 쓰임으로 삼았다. 무릇 어떤 일이 생기면 幾微에 맞추어 응접하여 그 자리에서 처리하니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끝이 없는 것에 탄복하였고, 능히 그 식견의 끝간 데를 헤아리지 못하였다.”³⁹⁾라고 하여 그의 넓은 도량과 합리적인 일처리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 『謏聞瑣錄』에는 한명회가 보한재와 사돈간이 되었고, 권람이 한명회와 혼사관계를 맺으려 하자, 한명회가 거절하기 난처하여 보한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보한재는, “이건 쉬운 일이오. 어째서 ‘우리 세 사람은 공로가 같은 몸이니 申의 집안과 혼인하고 또 그대의 집안과 혼인한다면 임금이 혹시 우리 세 사람이 지나치게 가깝다고 여겨 의심하지 않으리오.’ 하면 되지 않겠소”라고 하니, 권람이 혼연히 말하기를, “나의 생각이 미쳐 이르지 못하였소.”⁴⁰⁾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천하의 모사꾼이라는 한명회도 보한재에게 한 수를 배우는 모습이다.

4. 語學 · 外交 · 國防의 전문가

태조 2년(1393년) 9월에 司譯院을 설치하여 漢學, 蒙學, 女眞學, 倭學을 교육하고 장려하였다. 강신항은 보한재가 이들 외국어에 능한 이유를 23세 때 乙科 3등으로 문과에 합격하여 典農直長을 제수받았으나, 담당 관리의 실수로 파직되자, 독서에만 전념했던 이 시기에 공부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⁴¹⁾ 보한재는 이미 국제간의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어학공부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한재는 성삼문 등과 함께 13차례나 중국 요동을 왕래하면서 黃瓚 등에게 많은 자문을 구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姜希孟의 「文忠公行狀」에는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을 편찬하던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임금께서 우리나라 음운이 비록 華語와 다르나 그 牙 · 舌 · 唇 · 齒 · 喉音과 清 · 濁, 高 · 下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모두 제 나라 언어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제 언어를 기록하고 있으나 홀로 우리나라만 글자가 없다고 하면서 언문 자모 28자를 만드시고, 궁중 안에 기관을 설치하여 문신을 뽑아 언문 관계 서적을 편찬할 때, 공이 실제로 임금의 재가를 받들었다.……공이 한어 · 왜어 · 몽골어 · 여진어 등에 모두 통하여 때로는 역관의 힘을 빌리

38) 『世祖實錄』 권13, 4년(1458 戊寅年) 6월 29일.

39) 金宗直, 「保閑齋集序」. “……公城府弘曠. 才識博洽. 自通籍以來. 至居廟堂. 以其平日所蘊畜者. 發而爲經濟之用. 凡事物之來也. 迎幾應接. 左右酬酢. 人皆服其愈出而愈不窮. 而不能測識其涯際.”

40) 曹伸, 『謏聞瑣錄』 卷下. “忠成與文忠連婚 權翼平又欲與忠成婚 忠成難於拒辭 訪諸文忠 文忠曰 此易耳 何不答以吾三人一體同功 既與申結姻 又婚於君 則上無乃置疑於吾三人之密耶 遂如言答之 權瞿然曰 吾思不至此.”

41) 姜信沆, 「신숙주와 韻書」, 『새국어생활』 12: 3, 2002년 가을호, 48쪽. 강신항은 “보한재 선생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가장 뛰어난 어학자였다.”고 했다. (『신숙주의 音韻學』, 『어문연구』 30: 4, 2002년 겨울, 350쪽).

않고서도 또한 스스로 뜻을 통할 수 있었다. 후에 공이 손수 여러 나라 언어를 번역해 바치니, 역관들이 스승의 가르침이 없어도 이들 언어를 밝게 깨우칠 수 있었다.⁴²⁾

보한재는 「洪武正韻譯訓序」에서,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에 事大하여 왔으나 語音이 통하지 아니 하므로 반드시 통역에 의지해야 함을 헤아리시고, 먼저 『洪武正韻』을 번역하라 명하셨다”⁴³⁾라고 하여 중국어음을 바로잡고자 기울인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보한재는 1443년 卞孝文의 서장관으로 일본 京都까지 使行한 일과, 1452년 謝恩使 수양대군의 서장관으로, 1455년에는 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기록이 있다. 그리고 1460년과 1461년 2차에 걸쳐 毛隣衛野人에 대한 정벌을 단행했다.

보한재의 卒記에는, “신숙주는 天資가 고매하고 관후하면서 활달하였으며, 經史에 두루 미치고 의논에 항상 大體를 지녀서 까다롭거나 자질구레하지 아니하였으며, 大義를 결단함에 있어 江河를 터놓은 것과 같이 막힘이 없어서 조야가 의지하고 중히 여겼다. 오랫동안 禮曹을 관장하여 事大交隣을 자신의 소임을 삼아 詞命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⁴⁴⁾고 했다. 『懲毖錄』의 첫 장에는 죽음을 앞둔 보한재와 成宗의 대화가 실려 있다.

그 뒤 신숙주가 죽음에 임하였을 때 성종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라고 물으시니, 신숙주는 대답하기를, “원하옵건대 우리나라는 일본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잊지 말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성종께서는 그 말에 감동되어 부제학 이형원과 서장관 김흔에게 명하여 일본에 가서 화목을 도모하고 오게 하여 대마도에 이르렀는데, 사신들은 풍랑으로 해서 놀라 병을 얻을까 근심하여 글을 올려 그 상황을 보고하니 성종께서는 서신과 예물을 대마도주에게 전하고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⁴⁵⁾

保閑齋는 죽음에 임하면서도 왜국과의 선린우호를 당부할 만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의 소유자였다. 그가 견문한 일본의 실제 모습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임금께 올린 간언은 미리 화근을 예방하는 것이 임금과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보한재는 「海東諸國紀序」에서 일본을 다루는 문제를 깊이있게 언급하고 있다.

대개 이웃나라와 外交하고 聘問하는 것은 다른 풍속을 慰撫하고 접촉해서 그 정상을 안 연후에야 예절을 알 수 있고, 예절을 다한 연후에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臣 叔舟가

42) 姜希孟, 「文忠公行狀」, 『保閑齋集』 권17 附錄, “上以本國音韻與華語雖殊。其牙舌唇齒喉清濁高下。未嘗不與中國同。列國皆有國音之文。以記國語。獨我國無之。御製諺文字母二十八字。設局於禁中。擇文臣撰定。公實承審裁。……公俱通漢, 倭, 蒙古, 女真等語。時或不假舌人。亦自達意。後公手翻諸譯語以進。舌人賴以通曉。不假師授。”

43) 「洪武正韻譯訓序」, “吾東國世事中華 而語音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44) 『成宗實錄』 권56, 6년(1475 을미년) 6월 21일(戊戌).

45) 柳成龍, 『懲毖錄』 권1. “後叔舟臨卒 成宗問所欲言 叔舟對曰 願國家毋與日本失和 成廟感其言 命副提學李亨元 書狀官金訢修睦 到對馬島 使臣以風水驚疑得疾 上書言狀 成廟命致書幣於島主而回.” 심재의 『松泉筆譚』과 趙曦의 『海槎日記』에도 이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들으니, ‘夷狄를 대하는 도리는 밖으로 가서 혼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道理를 닦는데 있다’고 합니다. 변경에 가서 막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있으며, 兵革에 있는 것이 아니라 紀綱에 있는 것이니, 이에서 징험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⁴⁶⁾

『海東諸國紀』는 성종 2년(1471년)에 지어 바친 것인데, 河宇鳳은 조선 초기 대일외교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조선의 대일통교상의 교범과 기준’이 되었으며, 조선 후기 까지도 ‘통신사행원들이 일본에 갈 때 반드시 휴대한 서적’이었기에, 『海東諸國紀』의 체재나 내용이 ‘外夷列傳’의 성격을 띠고 있다.⁴⁷⁾고 했다. 그러나 韓榮國은 ‘『海東諸國紀』가 交隣의 大綱·方略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典範으로보다는 하나의 참고도서로 기능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고 낮게 평가한 바 있다.⁴⁸⁾ 신병주는 『海東諸國紀』의 저술을 통해 ‘조선 전기 최고의 외교전문가’로 활약한 신숙주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 인물의 역사적인 평가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이 균형있게 제기되어야 한다’⁴⁹⁾고 했다.

보한재는 평소,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기란 쉬운 것 같아도 실상은 어려운 것이니 오직 지극한 精誠만이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中孚卦에서 말한, ‘민음은 돼지와 물고기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사람에게에는 어떠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지니고 행동했기에, “성상께서 여러 곳의 客使를引見할 때에는 공이 항상 명을 받들어 德意를 선양하였는데, 주선하고 왕복함에 있어 용모와 儀式이 볼 만하였는데, 客人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⁵⁰⁾는 평을 들었다. 이는 그의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진왜란 중 講和논의가 한창이던 1596년(선조 29년) 1월 일본군의 통역을 담당했던 요시라가 경상우병사 김응서를 만나 상대방을 탐색하는 가운데, “과거 鄭夢周가 일본에 들어감으로써 오랫동안 海寇를 제어하였고, 申叔舟가 또한 일본에 들어감으로써 두 나라가 오랫동안 우호를 유지하였는데, 두 사람은 능히 일본의 강하고 약한 형세를 살펴 조선과 비교하면서 적절하게 조치하였기 때문에 능히 싸움을 멈추고 우호를 닦아 오랫동안 변함이 없게 하였다.”⁵¹⁾는 말을 한다. 왜국에서도 포은과 보한재의 외교사절로서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언급이다. 포은과 보한재를 기억하는 그들의 뇌리에는 높은 학식과 예지력,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양국간의 선린우호에 힘썼던 두 사람의 모습이 크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보한재가 세조 5년 3월 10일(壬辰)에 올린 장계를 보면 그가 북방 오랑캐에 대해 화유와 羈縻정책을 잘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한재는 글을 짓고, 이를 다시 여진 문자로 번역하여 타이르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어루만지며 그들 종족간의 화해를 주도하면서 말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6) 申叔舟, 「海東諸國紀序」, “夫交隣聘問. 撫接殊俗. 必知其情. 然後可以盡其禮. 盡其禮. 然後可以盡其心矣. ……臣嘗聞待夷狄之道. 不在乎外樣. 而在乎內修. 不在乎邊禦. 而在乎朝廷. 不在乎兵革. 而在乎紀綱. 其於是乎驗矣.”

47) 河宇鳳, 「조선초기 對日使行員의 일본인식」, 『국사관논총』 14, 1990, 96~97쪽.

48) 韓榮國, 「조선 초기 對日通交와 신숙주」, 『어문연구』 30: 4, 2002년 겨울호, 407쪽.

49) 신병주, 「신숙주의 일본 기행문, 해동제국기」, 『선비문화』 14, 2008, 15쪽.

50) 李承召 撰, 「碑銘」, 『保閑齋集』 권17 附錄. “嘗曰. 與人交際. 似易而實難. 唯至誠可以感動. 中孚之信. 可及豚魚. 況於人乎. 上引見諸方客使. 公承命道宣德意. 周旋往復. 容儀可觀. 客人敬畏焉.”

51) 『宣祖實錄』 권71, 29년(1596 丙申年) 1월 23일(庚寅).

咸吉道都體察使 申叔舟가 馳啓하기를,……신이 곧 글을 지어 女眞 글자로 번역하여 가상합에게 부쳐서 야당기 등을 타일렸습니다.……신이 차례로 穩城·慶源에 이르러 올랑합·女眞 등을 招諭하였더니, 모두 명한 대로 하였습니다.……지금 보건대, 올적합·알타리·여진 등이 六鎭의 近境을 빙 둘러싸고 있는데,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받들어 오직 邊將의 부리는 자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이 지금 오니, 곳곳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달려와서 다투어 알현하는데, 수백 명씩 떼를 이룹니다. 올적합 등은 땅이 멀어서 은혜와 위엄이 미치기는 하지만 이러한 무리와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였다.⁵²⁾

보한재의 死後 봉상사에서 시호를 ‘文忠’으로 올리자 논란이 일어났다. 史臣은 이를 평하여, “忠이란 자신이 위태로우면서도 위를 받드는 것인데, 신숙주가 평생에 무슨 그의 몸이 위태한 일이 있었는가”⁵³⁾하며 봉상시 관원들의 논의를 비판했는데 사림에 의한 후대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Ⅲ. 漢詩 분석

1. 明良相遇의 盛世 추구

세조는 곧잘 자신과 공신들과의 관계를 역사상 유명한 明良相遇의 관계로 비유하기를 좋아했다. 한명회를 張良에, 양성지를 諸葛亮에, 文에는 귀성군, 武에는 홍윤성, 그리고 보한재를 魏徵에 비유했다. 위징 사후에 당태종은,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성쇠와 왕조 교체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得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짐은 일찍이 이 세가지 거울을 구비한 덕에 허물을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위징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마침내 거울 하나를 잃고 말았다.”⁵⁴⁾고 한 것이다.

당태종에게 있어 위징은 결코 끈고려롭고 까다로운 신하였지만 너그러운 성군의 마음으로 그의 간언을 받아들여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다. 절대 권력에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제동을 거는 존재가 간관이다. 아래의 시는 세조가 연회에서 술이 거나해지자 잠저시에 지은 시구를 외우면서 신숙주에게 시를 짓게 한 것이다.

「己卯二月八日。上宴宗功于內殿。酒酣。因誦潛邸時所製詩句曰。至美不務治。大造無顯迹。驥足寧急展。鵬翔豈厲促。遂命臣分其字。衍爲二十首而進」(『保閑齋集』 권3, 五言小詩)⁵⁵⁾

52) 『世祖實錄』 권15, 5년(1459 己卯年) 3월 10일(壬辰).

53) 『成宗實錄』 권170, 15년(1484 甲辰年) 9월 6일(庚寅).

54) 『貞觀政要』 권2, 論任賢 第三. “太宗後嘗謂侍臣曰 夫以銅爲鏡 可以正衣冠 以古爲鏡 可以知興替 以人爲鏡 可以明得失 朕常保此三鏡 以防己過 今魏徵殞逝 遂亡一鏡矣.”

55) 漢詩의 출전은 詩題 옆에 괄호로 표시함. 이하 同.

皇天眷大東	하늘이 우리 동국을 사랑하사
聖主濟時否	성주를 내시어 비색한 시대를 구제하셨네
撥亂極塗炭	어려움 다스려 도탄을 바로 잡으시니
湯武豈專美	殷湯과 周武만이 아름다움을 오로지 할 것인가

위 시는 1459년(기묘, 세조 5년) 2월 8일 세조가 종친과 공신들을 위해 베푼 소연에서 술이 거나해지자, 잠저시에 지었던 시(“至美不務治 大造無顯迹 驥足寧急展 鵬翔豈厲促”)를 외우고는 보한재에게 시구의 글자를 나누어 짓게 하자, 20수를 지어 바친 시 중 2번째이다. 세조의 시도 은연중 왕권과 至治를 꿈꾸고 있지만, 보한재의 응제시도 이에 화답하는 廣載詩의 성격을 띄고 있다. 세조를 은탕과 주무왕에게 비유한 시이다. 明良相遇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시이다.

「屯亨詩 十三首」〈奉教和進(各占字) 十三章 得轉字〉(『保閑齋集』 권3, 五言小詩)

事固不可力	일이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變換與時轉	변화란 때와 더불어 바뀌어 가는 것
人人空有心	사람마다 부질없이 마음 아파하니
慼慼無所展	근심을 펼칠 곳이 없네

일의 성패 여부와 변화의 조짐을 살피는 것은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다. 보한재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고, 이에 맞게 처신했지만, 부귀영화가 지극하고 정상의 위치에 오른 만년에는 주변의 시기와 질시로 인해, 예리한 감각이 둔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보한재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유희진은 이 시에 대해, “만물·만사의 盛衰에 時運이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한다는 順命意識이 여기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하고, “시인이 세조의 정변에 동조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인생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⁶⁾고도 했다.

「題姜正郎(希顔) 字說詩卷」〈3수 중 제1수〉(『保閑齋集』 권4, 七言小詩)

男兒志學聖賢歸	남아는 학문에 뜻을 두어 성현을 지향해야 하니
予舜何人在有爲	순임금처럼 되는 것은 자기가 하기에 달렸다네
胸中眞樂無今古	마음 속에 참된 낙은 고금이 따로 없으니
紈綺簞瓢各不移	비단 옷과 도시락 밥 각자 뜻을 변친 않네

남아의 포부는 학문에 뜻을 두어 성현을 지향하고, 순임금도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보한재

56) 유희진, 「신숙주 시에 나타난 人生理想의 轉變」, 『동양고전연구』 36, 2009, 179~180쪽.

의 학구적인 자세와 위국애민의 열정은 이 시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인간의 眞樂은 어디에도 없고, 다만, 끊임없는 노력 여하에 따라 紈綺와 簞瓢의 삶이 구별될 뿐이라고 했다. 동시에 스스로가 추구하는 삶의 양상에 대해 변치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光陵挽辭」〈6수중 제4수〉(『保閑齋集』 권8, 五言四韻)

遭逢自在閤	왕위에 오르기 전 의기가 상함하였고
國土便蒙知	나라의 선비로 예우를 받았네
萬里從羈勒	만리 사행길 모시고 다닐 때
千山備嶮夷	험준하고 평탄함을 가리지 않았네
傾心輸肺腑	마음을 기울여 진정으로 모셨고
附翼際昌熙	빛나고 좋은 때에 가까이에서 보필하였네
奔走擔圖報	맹세코 그 은덕 갚고자 분주하였고
終身以爲期	이 목숨 다하도록 기약했었네

세조가 승하한 후 지은 만사 6수 중 제4수다. 豫讓과 智伯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시다. 國土로서 대접 받은 감격을 읊은 것이고, 진정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주군을 만난 신하의 맹서이기도 하다. 세조의 知遇를 받아 보필하면서 국정을 수행하다가 주군을 먼저 떠나보낸 신하의 충직한 고백이다.

2. 爲國愛民의 양상과 自矜心

보한재는 박학한 학문을 바탕으로 節制와 中庸의 처신이 몸에 밴 인물이다. 그의 학문은 政事를 통해 백성들에게 은혜가 돌아갔고, 외교와 국방의 일도 그의 손을 거쳐 안정되었다. 모든 것은 평소 학구적이며, 진지하게 준비하는 그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在博多島。次韻寄仁叟，伯玉，仲章，謹甫，清甫山居」〈2수중 제2수〉(『保閑齋集』 권4, 七言小詩)

一任東西自在遊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자유롭게 노닐더니
滄溟萬里海天秋	바다 건너 만리 밖 하늘가에서 가을을 맞네
翻思有命應先定	거듭 생각해보니 명은 정해져 있는 듯하니
字是泛翁名叔舟	자는 泛翁이고 이름은 叔舟라네

보한재는 자신의 자(泛翁)와 이름(叔舟)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풀이했다. ‘泛’과 ‘舟’는 ‘魚水’의 관계와 같아 그와 세조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그의 세상살이의 모습이고, 인생의 의미이기도 하다. 동서

로 자유롭게 노니는 것은 외교와 국방의 소임을 의미한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니, 잘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뜻이다. 이 시에 대해 임종옥은 “나라의 큰 책임을 맡은 자신의 능력과 행운을 자부하는 마음이 더 크다.”⁵⁷⁾고 했다. 유호진은 이 시에 대해, “‘叔舟’라는 이름과 ‘泛翁’이라는 字는 바람의 방향 따라 물결의 흐름 따라 움직이는 인생태도, 운명에 순응하는 그의 의식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젊은 시인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에 절조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의식은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⁵⁸⁾라고 했다. 이종묵은 “신숙주 시는 자신의 인명이나 대상의 인명을 즐겨 시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의 學詩의 연원이 楚辭 외에도 韓愈·蘇軾·黃庭堅·陳師道 등에게 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했다.⁵⁹⁾

「在阿赤河陣中偶吟」(『保閑齋集』 권4, 七言小詩)

虜中霜落鐵衣寒	오랑캐 땅에 서리 내리니 갑옷은 찬데
突騎縱橫百里間	기마병 백리 사이를 중횡으로 달리누나
夜戰未休天欲曉	밤 전투는 끝나지 않았는데 하늘은 밝아오고
臥看星斗正闌干	누워서 바라보노라니 북두성이 바로 비끼네

보한재의 시 가운데 가장 널리 회자되고 있는 시이다. 이 시는 그가 함길도 도체찰사로 女眞을 招諭하러 회령에 갔을 때 지은 시다. 그가 국경 지역에 있을 때, 여진족이 밤에 夜襲해왔다. 진중이 시끄러웠는데 그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장수들을 모아 이 시를 읊었다. 그러자 장수와 사졸들이 그의 편안함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李睟光은 雜記를 인용하여 이 시를 소개한 후, “나는 말한다. 숙주가 능히 動搖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가 한 일은 일부터 安閑한 태도를 꾸며서 침착한 체하는 행동에서 나온 처사로서 그것이 바로 동요한 것이다.”⁶⁰⁾라고 했는데, 이는 장수들이 사용하는 심리전으로서 ‘矯情鎮物’ 자체가 그 전략인 것이다. 조동일은, “거기 나타나 있는 사연은 긴장의 연속이다. 끝으로 별들은 많이도 얹혀 있다고 한 말마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허다한 과제를 암시한다 하겠다.”⁶¹⁾고 했다. 신용호는 이 시를, “늠름한 장부의 기상이 잘 드러난 시”⁶²⁾라고 했다. 이종묵은 “儒者로 입신한 그이지만 굳건한 기상이 오히려 무장의 그것보다 높다 하겠다”⁶³⁾고 평가했다.

「次永柔東軒韻 從弟薛榮祖爲守」〈2수중 제2수〉(『保閑齋集』 권4, 七言小詩)

憐君佩綬率荒城	그대가 인수를 차고 거친 성에 수령으로 가게 된 것 아름답도다
---------	------------------------------------

57) 임종옥, 「여말선초 두 지식인의 일본체험」, 『일본학』 22, 2003, 135쪽.

58) 유호진, 「신숙주 시에 나타난 人生理想의 轉變」, 『동양고전연구』 36, 2009, 175쪽.

59) 李鍾默, 「신숙주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2, 1996, 628쪽.

60) 李睟光, 『芝峯類說』 卷13, 文章部 6. “余謂叔舟非能不動 其所爲出於矯情鎮物 乃其動處也”

6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1983, 지식산업사, 349쪽.

62) 申用浩, 「보한재의 문학세계」, 『한문학과 한문교육』(상), 보고사, 2004, 599쪽.

63) 李鍾默, 「신숙주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2, 1996, 639쪽.

爲吏莫如廉與平	관리에겐 청렴과 공평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네
從古政成無異事	예로부터 훌륭한 정치 이름은 다른 일이 아니니
烹鮮不過順民情	다스림이란 백성들의 뜻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네

위 시는 從弟 薛榮祖가 먼 지방의 수령으로 나갈 때에 축하와 함께 부탁을 전하는 시다. 청렴과 공평은 평소 그가 말하는 ‘清白自守’와 같다. 다스림의 요체를 ‘順民情’이란 말로 정의한 보한재의 감각이 돋보인다. 신용호는 “이 시에서는 수령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민본사상을 일깨워주고 있다”⁶⁴⁾고 했다.

「我有二篇。送李光後之平安道求新地」〈2수 중 제2수〉(『保閑齋集』 권10, 五言古詩)

我有一尺劍	나에게 일척검이 있노니
神氣干天高	신이한 기운은 하늘 높은 곳을 찌른다네
佩之東絕海	검을 차고 동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니
蛟龍不敢嗚	교룡이 감히 부르짖지 못했고
佩之西度遼	검을 차고 서로 요동 땅을 넘으니
豺虎不敢嗥	승냥이와 범이 감히 울부짖지 못하였네
青蛇一入袖	청사검을 한 번 소매에 넣으면
令人膽氣粗	사람의 담력은 커지기 마련
神物豈容易	신령스러운 물건을 어찌 쉬 구하리오
贈君當遠徂	멀리가는 그대에게 주노니
隨君適萬里	그대 지니고 만리 밖으로 가서
試窮西北疆	서북 변경에서 마음껏 시험해 보게나
功成早歸來	공이 이루어져 일찍 돌아오게 되면
看劍引杯長	검을 보면서 오래도록 술잔을 드세나

보한재의 시 가운데 가장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시’라고 보여진다. 자신의 능력과 神術을 과시한 시이다. 또한 멀리 임지로 떠나는 이에게 자신감과 소신, 그리고 자신만의 長技(청사검)를 반드시 구비하라는 조언이기도 하다. 야인을 상대하는 일은 항상 어렵고, 험난하다. 유희진은 “사실 첫 부분은 그가 일본에 사행갔던 일과 음운 연구를 위해 요동에 왕복한 일을 서술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바다의 교룡과 대륙의 豺虎조차도 숨을 죽이게 하는 無敵의 인물로 자신을 형상화하고 있다.”⁶⁵⁾고 하면서 강한 자긍심을 드러내었다고 보았다.

64) 申用浩, 「보한재의 문학세계」, 『한문학과 한문교육』(상), 보고사, 2004, 593쪽.

65) 유희진, 「신숙주 시에 나타난 人生理想의 轉變」, 『동양고전연구』 36, 2009, 182쪽.

3. 功業에 대한 懷疑와 人生無常

출세지향적인 인물들이 공업을 이루고 정상에 오르면 물러가 한가롭게 ‘江湖之趣’와 ‘蕭散之態’를 즐기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보한재는 특히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애쓰 인물이기에 물러가 한적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중국의 음운학자 黃瓚이 쓴 「希賢堂詩序」에는 그가 ‘保閑齋’라는 아호를 갖기 전에 지향했던 세계가 드러난다.

그런데 賢人을 바라는 선비를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가 高陽의 泛翁 叔舟를 겨우 만나보게 되었다. 처음에 숙주가 배우기 위해 내게 와 있을 때 그의 용모가 지극히 端重하고 언동이 구차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가 반드시 本末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수일을 같이 지내며 숙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별하고 간 후에 월여를 지나 다시 오니 서로 돕는 간절함으로 인해 그 마음을 얻음이 더욱 깊어졌다. 그때부터 좋은 선비로 지목되었고, 그후 돌아갈 즈음 堂額을 부탁하기에 드디어 ‘希賢’으로 명명하였는데, 그것은 周子가 말한 ‘선비는 賢人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⁶⁶⁾

황찬이 본 젊은 시절의 보한재는 ‘源委’(本末)를 갖춘 인물이었다. 그래서 당호를 ‘希賢堂’으로 명명하고 그를 격려한 것이다. 보한재는 李施愛亂 때 함길도 관찰사였던 아들 申澍이 전사하고, 자신과 네 아들이 하옥 되는 변고를 겪은 후, 권력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는 한강변에 정자를 지었다. 이듬해 정월에 그는 호를 ‘希賢堂’에서 ‘保閑齋’로 바꾼다. 倪謙에게 준 手簡에서 그가 살아온 인생을 ‘浮生’으로 표현하면서 素志대로 살고 싶으나, 한가함 또한 얻기가 어려우므로 ‘保閑亭’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⁶⁷⁾ 신 용호는 보한재가 “벼슬을 사직하고 한가함 『閑』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소망이 더욱 절실했음이 드러나 있다.”⁶⁸⁾고 했다.

「陽德途中偶吟」(『保閑齋集』 권10, 五言古詩)

前年一齒落	작년에 이 하나 빠지더니
今年一鬚白	금년엔 수염 한 올이 세는구나
固知老不免	진실로 늙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겠으나
奈此便相迫	이것이 닥쳐옴을 어찌할거나
役役猶未休	애써 일하며 아직도 쉬지 못하니
萬里事劍戟	만리 밖에서 무공을 일삼네

66) 『保閑齋集』 권17 附錄, 「希賢堂詩序」. “希賢之士. 吾不見者久矣. 僅得之於高陽泛翁叔舟. 初. 叔舟方以求益. 來拜寓館. 容貌極端重. 而言動皆不苟. 予意其人必有源委者也. 處數日後. 又有以得叔舟之心. 既而別去. 越月餘復至. 因其相資之切. 而得其心愈深矣. 迺以善士目之. 將歸. 求其堂額. 遂以希賢爲號. 寔取周子士希賢之謂也.”

67) 『保閑齋集』 권16 書簡, 在燕京會同館. 呈倪學士 謙 手簡.

68) 申用浩, 『한문학과 한문교육』(상), 2004, 보고서, 610쪽.

功業無足取	공업은 족히 취할 만한 게 없고
虛名亦已極	허명도 이미 지극하니
庶幾謝簪紱	바라건대 벼슬에서 물러나
歸來保迂拙	돌아가 어리석은 성품을 보존하기를

정상에 올라 부귀영화도 누렸고, 두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었으며, 만년에 세조의 총애가 의심으로 돌변하고, 못 신하들의 시기와 질시로 인해 그는 한명회와 함께 대표적인 ‘專擅의 신하’로 몰린다. 정상에 오르면 아랫 사람들은 끌어내리기에 힘쓰고, 임금의 새로운 신하를 가까이 하기 마련이다. 이때의 시는 몸은 늙고, 공업은 의미가 없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주된 주제였다. 조동일은 “『陽德途中偶吟』같은 오언고시에서는 돌아가 쉬고 싶은 심정을 나타냈는데, 작자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납득할 수 있는 술회이다.”⁶⁹⁾라고 했다. 유호진은 이 시를 그가 평안도를 오가던 40대 초반에 지은 것으로 보고, “그가 줄곧 추구했던 공명에 대하여 3연에서는 육체적인 피로감을, 그리고 4연에서는 깊은 염증을 피력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이다. 이 시에는 인간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로 인한 불안감이 유동하고 있는 것이다.”⁷⁰⁾라고 보았다.

「次前韻。呈判禪宗(仁允)〈3수중 제2수〉(『保閑齋集』 권6, 七言小詩)

(昨方困坐。童子忽傳小簡。曰自一菴。令讀之。詩一絕也。遂以爲一菴之詩。卽廣韻戲答。既去。更看小簡。則乃自判禪公。非一菴也。其迷妄誠可笑也。方悟心不可著如是。又用前韻爲三絕。奉呈判禪公侍者以自笑。且自解云。)

眞妄相凌混異同	참과 거짓이 서로 침범하여 서로 다른 것들이 섞이니
此心迷誤逐狂風	미혹된 이 마음은 미친 바람을 쫓는 듯하네
終知未免眼中眚	끝내 눈 안의 백태를 면하지 못함을 알겠으니
拍手呵呵笑一通	박수치며 깔깔 한바탕 웃어보네

‘眼中眚’은 선입견이나 분별지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보한재의 판단능력의 오류로 볼 수 있다. 뛰어난 관찰력과 예지력을 지닌 그였지만, 때로는 그 자신도 미망에 빠짐을 스스로 위안한다는 것이다. 유호진은 이 시에 대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미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끝내 눈의 백태를 면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이다. ‘눈을 가리는 하얀 막’은 사물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선입견, 더 확대하자면 인간의 分別智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분별지로 말미암아 만물의 참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다.”⁷¹⁾라고 했다.

6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349쪽.

70) 유호진, 「신숙주 시에 나타난 人生理想의 轉變」, 『동양고전연구』 36, 2009, 185~186쪽.

71) 위의 논문, 192~193쪽.

「題崔提學德之休官赴靈岩舊隱詩卷」〈5수중 제1수〉(『保閑齋集』 권4, 七言小詩)

賦就歸來寂寞濱	적막한 물가로 돌아가 귀거래사를 읊으며
紉蘭委佩作閑身	난초 꿰어 길게 차고 지내는 한가한 몸 되었네
急流勇退知多少	급류에서 용퇴할 줄 아는 이 몇이나 되겠는가
羞殺紅塵汨沒人	속세에서 골몰하고 있는 내가 매우 부끄러워지네

이 시는 홍문관제학으로 있던 최덕지가 벼슬에서 물러나 옛 은거지였던 영암으로 돌아가려 하자 지인들이 전별의 시를 지어 시권으로 만들 때에 써준 시이다. 「귀거래사」를 읊으며 전원으로 돌아간 陶淵明이나, 참소로 벼슬에서 쫓겨나 물가를 배회하던 屈原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가 평생 공업을 쌓으며 몸 담았던 관료생활을 ‘急流’에 비유하고 있다. 그만큼 그가 살아온 시대가 매우 험난했음을 의미한다. 어렵고 힘들수록 물러나고 싶었던 그에게 出處는 늘 반복되는 화두였다. 임금의 만류와 직무에 대한 자긍심은 그를 한가하게 놔두지 않았던 것이다. 보한재의 四男 申瀾은 33세에 도승지를 지낸 인물인데 어보 위조 사건으로 1482년(성종 13년)에 賜死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성종은 “법은 마땅히 貴顯한 자로부터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참수형 대신 사사하고, 공신적에서 삭제하며 그 자손을 금고에 처함으로써⁷²⁾ 공신들에 대한 예우도 예외없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보한재 사후 7년의 일이다. 史臣은 “지금 대신들의 의논을 보니 혹은 ‘元勳의 아들이며 親功臣이다’고 말하니 매우 의심스럽다. 그들도 또한 自身을 自重하여 뒷날의 계책을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⁷³⁾고 하여 공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낄 수 있다.

「書乙未曆」(『保閑齋集』 권7, 七言小詩)

流光瞥眼逐蛇梭	세월이 베를 사이를 지나는 북처럼 빠르고
世事紛紛日更多	분분한 세상 일은 날로 더욱 많아지네
坐爾浮名空白首	뜬 구름 같은 명에 누리며 헛되이 늙은 이 몸
無如五十九年何	오십 구년 동안을 어찌 할 수 없었도다

이 시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회고하는 의미를 가진 시이다. 『燃藜室記述』에는 沈光世의 「해동악부」⁷⁴⁾를 인용하여, “공이 젊었을 때에 성삼문·박팽년 諸公과 더불어 명성이 같아서 함께 文宗의 託孤의 유언을 받았다. 세조가 위에 오르매, 벼슬이 上相에 이르고 나이가 59세로 임종에 임하자 한숨 쉬며 탄식하기를, ‘인

72) 『成宗實錄』 권140, 13년(1482 壬寅年) 4월 24일(壬戌).

73) 『成宗實錄』 권140, 13년(1482 壬寅年) 4월 23일(辛酉).

74) 沈光世, 『休翁集』 권3 「臨歿歎」.(人之將死也. 善心自萌. 乃是常理.) “申文忠公叔舟少與成三問, 朴彭年諸公齊名. 同在玉堂. 俱受顯陵託孤之教. 光廟受禪. 成, 朴諸公盡節不二. 皆被極刑. 文忠宣力王家. 位至上相. 年五十六卒. 臨歿喟然曰. 人生會當止此而死矣. 蓋悔心之萌云. 世上百年內. 畢竟了此生. 生前富貴重. 死後節義榮. 取捨既已審. 不必歎臨終. 君看青史上. 萬古多如公.” 심광세의 『해동악부』 「臨歿歎」에는 보한재의 졸년이 56세로 되어 있다.

생이 마침내 여기에서 그치고 죽는구나.’ 하였으니, 대개 후회하는 마음이 싹터서 그러하였다 한다.”⁷⁵⁾고 했다. 결구의 ‘無如何’(어찌 할 수 없었도다)는 죽음을 앞둔 인간의 무력함을 토로한 말인데, 이를 ‘悔心’으로 해석하여 지난날의 과오(특히 세조편에 선 것)를 속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같은 자의적인 해석이 李建昌의 「高靈歎」⁷⁶⁾(『明美堂集』 권4)으로 이어졌고, 이를 “신숙주가 죽음에 다라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탄식한다는 줄거리”⁷⁷⁾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高靈歎」은 장편 고시로 ‘人生會止此’(인생이 마침내 여기서 끝나는구나)로 시작하는 시구가 5차례 반복되는데, 沈光世의 『해동약부』의 「臨歎」에 기록된 ‘人生會當止此而死矣’에서 가져와 시어로 삼은 것이다.

신용호는 이 시가, “노퇴하여 閑을 누리며 한가히 지내려는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영의정이라는 현직에 있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스스로의 운명을 예견하고 지은 듯한 詩識이 되어, 공은 결국 이 해 6월 21일에 운명하게 된다”⁷⁸⁾고 하였다. 이종묵은 “죽음을 앞둔 나이에도 할 일은 많고 세월은 빠르다 한 것에서 말년까지 쉬지 못하고 국사에 전념한 그의 노고를 이 작품에서 읽을 수 있다”⁷⁹⁾고 했다.

그의 줄기에는 많은 공을 치하한 후, 끝에 “세조를 섬김에는 承順만을 힘썼고, 예종조에는 刑政이 공정함을 잃었는데, 匡救한 바가 없었으니 이것이 그의 단점이다. 恩眷이 바야흐로 성하였으나 자신이 縲絏의 욕을 만났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申漣도 또한 베임을 당했으니, 슬퍼할진저!”⁸⁰⁾라고 하였다.

IV. 문학사적 위치

보한재 한시의 문학사적 위치를 자리매김 하기 위해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성과를 일별하고자 한다. 조동일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부정적인 각도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굳어져가던 질서를 흔들어 놓아 생기가 돌게 한 작용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신숙주에 대해 “절개를 굽혔다고 시비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살아서 이룬 일이 더 크며, 글이나 다듬고 도리를 지키는데만 힘쓰는 예사 선비가 따를 수 없는 능력과 기풍을 발휘했다. 특히 외교 및 국방문제 전문가로서 일본과 중국을 다녀오고, 여진 정벌을 맡아서 출전하면서 식견을 넓혔다.”⁸¹⁾고 했다.

申茂植은 보한재의 시세계를 1. 憂國의 情, 2. 抒情의 세계, 3. 親交의 詩心으로 분류하여 살피고, 보한재

75)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5, 세조조 相臣 申叔舟, “公少與成朴諸公齊名 俱受顯陵托孤之教 及上受禪位 至上相 年五十九臨沒 喟然曰 人生會當止此而死矣 蓋悔心之萌云” 『海東樂府』.

76) 「高靈歎」은 『明美堂集』 권4 시에, “家弟讀東史. 要作樂府一篇. 因書此示之.”라고 하여 애초에는 집안의 교육용으로 지은 것이다.

77) 林榮澤, 「신숙주 시대와 문학」, 『어문연구』 30: 4, 2002년 겨울호, 393쪽.

78) 申用浩, 『한문학과 한문교육』(상), 2004, 보고사, 613쪽.

79) 李鍾默, 「신숙주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2, 1996, 648쪽.

80) 『成宗實錄』 권56, 6년(1475 乙未年) 6월 21일(戊戌).

8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347~349쪽.

는 ‘비판과 저항의식을 배제하고 順命意識대로 살다 간 현실참여주의자이며, 이는 당시의 정세로 보아 당연히 취할 수 밖에 없는 시대의식’으로 보았다.⁸²⁾

李鍾默은 보한재의 문학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해외체험’인데, 이는 당시로는 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杜甫의 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당대 누구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또한 ‘그의 변절이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이것이 문학연구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면서, ‘세종·세조 연간에 우뚝 솟은 시인으로, 당대 館閣의 시가 지향해야 할 전범을 보였다’고 평가했다.⁸³⁾

김남이는 보한재의 한시에는 ‘歎老·교유의 정·宦路의 고달픔’ 등 서정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다고 했다. 또한 신숙주의 ‘인물 題畫詩는 詠史詩에 가깝다’고 했다. 또한 집현전 학사들이 題畫詩에서 觀念性和 理想性이 강하게 투영된 심미적 가치를 추구했던 것 또한 士林들의 미의식과 유사한데, 이러한 親緣性은 15세기 官人文學이 이후의 士林들에게 ‘비판하고 극복해야만 할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아님을 예시해 주고 있다고 했다.⁸⁴⁾

林煥澤은 보한재가 물려받은 ‘犀帶詩卷은 韓蕤·李詹·河演·辛碩祖로 이어진 것이어서 고려의 문풍을 嫡統으로 계승했다’고 했다. 이어서, ‘신숙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내려진 것’이며, 그는 ‘문장학에 기초한 事功派’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부정적인 쪽으로 편향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의 현상이라고 보았다. 李建昌의 「高靈歎」에서 보한재의 공적과 문장에 대한 평가에는 인색하지 않았지만, 그의 의식 속에는 ‘의리를 절대적 가치로 고수하려는 뜻이 담겨있다’고 보았다.⁸⁵⁾

임종옥은 첫째, 포은과 보한재 모두 ‘일본과의 외교관계의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며 그런 책임을 맡은 자신에 대해 ‘큰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그들의 시에는 만리 밖 ‘타향살이에 대한 적막감과 孤絶感’을 드러냈고, 셋째, 일본의 풍습과 문화에 대한 발견을 노래했다고 했다.⁸⁶⁾

申用浩는 보한재 문학의 특징을 첫째, 공의 豪放한 기상이 문학으로 발현되었고, 둘째, 작품을 창작할 때 인위적인 수식보다는 자연스럽고 평이하게 짓고자 하였으며, 셋째, 문학의 근본 바탕을 忠君愛民에 두었다고 했다. 또한, 보한재의 한시를, ① 忠君愛民 의식, ② 丈夫의 氣象, ③ 江湖自然 希求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특히, 보한재의 「八駿圖賦」는 ‘館閣文學의 최고 걸작’인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단 한 편의 연구논문도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했다.⁸⁷⁾

유호진은 보한재의 시를 세조의 정변을 중심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크게 나누고, 전반기 시에는 自足的 세계와 강한 自矜心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의 자긍심은 ‘순수한 마음을 견지하려는 의식과 백성을 구제하려는 그의 經世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세조 치하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으나 자신이 택한 길에 대해 점차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공명이나 삶 자체가 허망한 것이라는 무상감에 휩

82) 申茂植, 「보한재 신숙주의 한시 연구」, 단국대 교육학석사논문, 1993, 65쪽.

83) 李鍾默, 「신숙주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2, 한국한시학회, 1996, 622~649쪽.

84) 김남이, 「신숙주 題畫詩의 성격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17, 동양고전학회, 2002, 177~203쪽.

85) 林煥澤, 「신숙주의 시대와 문학」, 『어문연구』 30: 4, 2002년 겨울, 383~393쪽.

86) 임종옥, 『여말선초 두 지식인의 일본 체험』, 『일본학』 22, 2003, 138~139쪽.

87) 申用浩, 『한문학과 한문교육』(상), 보고사, 2004, 576~585쪽.

싸이는데, 이는 佛家の 空思想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했다.⁸⁸⁾

林采明은 그의 「日本國栖芳寺遇眞記」(并賦)에 나타난 선계적인 아름다움과 眞仙을 만난 경험이 그의 시에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을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조선 조정에서는 보한재의 대일 유화책을 유효한 정책적 수단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그가 취한 대일 노선이 가문의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했다’고 보았다.⁸⁹⁾

V. 결 론

首陽大君은 癸酉靖難을 통해 왕위에 오르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내금위 무사들과 집현전의 일부 학사들의 동조 내지 암묵적인 지지를 통하여 세조의 전제정치는 시작되었다. 단종이 禪位형식으로 상왕으로 물러나고, 단종복위 사건에 연루됨에 따라 賜死되는 과정에서 많은 종친들과 신하들이 희생되었다. 太宗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집권한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전제정치를 통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물리치고 세종의 업적을 계승하면서 조선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保閑齋 申叔舟였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하고 조카와 동생들을 죽인 인물로 사육신과 사람들에 의해 부정된 왕이었다. 보한재는 세종의 托孤之敎를 받았으나 이를 배반하고 세조 편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린 변절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보한재는 그의 천재적인 직무능력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세조의 후원 아래 조선 초기의 국정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를 돕고, 『經國大典』, 『國朝五禮儀』의 편찬을 주도했다. 世祖가 周公과 같은 섭정을 통해 물러나는 방법을 택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그의 높은 경륜과 앞선 시대의 교훈은 그같은 선택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 보한재의 경우, 선왕의 顧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같은 인간적인 부탁이 어지러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선택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사육신의 입장에서, 특히 성삼문이 보한재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志節과 名分の 문제라기 보다 政敵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본다. 보한재는 변절자라는 불명예에 시달린 인물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시대상황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88) 유호진, 「신숙주 시에 나타난 人生理想의 轉變」, 『동양고전연구』 36, 2009, 198~199쪽.

89) 林采明, 「詩文을 통해 본 申叔舟 家系의 일본에 대한 관심」, 『漢文學論集』 30, 근역한문학회, 2010, 194~213쪽.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大東野乘』

『保閑齋集』

『懲志錄』

『論語』

『太虛亭集』

『秋江集』

『史記』

『謏聞瑣錄』

『貞觀政要』

『芝峯類說』

『明美堂集』

『徐四佳全集』

池斗煥, 『조선전기 儀禮연구 - 성리학 正統論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3.

韓永愚, 『조선전기 사회경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3.

鄭杜熙,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일조각, 1983.

이성무, 『재상열전 - 조선을 이끈 사람들 -』, 청아출판사, 2010.

申東竣, 『조선의 왕과 신하, 富國強兵을 논하다』, 살림출판사, 200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申用浩, 「보한재의 문학세계」, 『한문학과 한문교육』(상), 보고사, 2004.

박은봉,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 책과 함께, 2007.

이덕일, 『사화로 보는 조선역사』, 석필, 1998.

崔植鏞, 「세조의 집권과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8.

김경수, 「세조의 집권과 권력 변동」, 『백산학보』 99, 2014.

金榮洙, 「포은 정몽주의 절의와 문학적 형상화」, 『포은학연구』 1, 포은학회, 2007.

김용흠, 「조선 세조대 정치를 보는 시각과 生六臣」, 『역사와 현실』 64, 2007.

吳宗祿, 「신숙주의 군사정책과 宰相으로서의 經綸」, 『역사학논총』 34, 2003.

- 강신항, 「신숙주의 音韻學」, 『어문연구』 30: 4, 2002.
- 河宇鳳, 「조선초기 對日使行員의 일본인식」, 『국사관논총』 14, 1990.
- 韓榮國, 「조선 초기 對日通交와 신숙주」, 『어문연구』 30: 4, 2002.
- 유호진, 「신숙주 시에 나타난 人生理想의 轉變」, 『동양고전연구』 36, 2009.
- 임종욱, 「여말선초 두 지식인의 일본체험」, 『일본학』 22, 2003.
- 李鍾默, 「신숙주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2, 1996.
- 林燦澤, 「신숙주 시대와 문학」, 『어문연구』 30: 4, 2002.
- 申茂植, 「보한재 신숙주의 한시 연구」, 단국대 교육학석사논문, 1993.
- 김남이, 「신숙주 題畫詩의 성격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17, 동양고전학회, 2002.
- 林采明, 「詩文을 통해본 申叔舟家系의 일본에 대한 관심」, 『漢文學論集』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이 논문은 2017년 5월 26일에 투고되어,
 2017년 6월 22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7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7월 1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Shin, Sook-joo(申叔舟)'s Serving His Country & People and the Research of His Chinese Poem*

Kim, Youngsoo**

Shin-sook-joo(申叔舟 : from 1417 to 1475, Pen Name : Bohanjae : 保閑齋) is a subject who served from Sejong(世宗 : 4th King) up to Sungjong(成宗 : 9th King)'s tenure. Sejong appreciated his ability and another king Sejo(世祖) assigned him to a important post. At the early Chosun dynasty due to non-primogeniture succession(from Jungjong<定宗>, Taejong<太宗> to Sejong the royal authority was not stable. From Sejong's tenure his primogeniture succeeded to the throne and the royal authority looked stable for a while. But due to short tenure(27 months) his first son Danjong(端宗) succeeded to the throne when he was only 12 years old. The Royal family and retainers had continuous conflicts on the way of government operation and Gye-Yoo coop(癸酉靖亂) took place in 1453 by Soo-yang-dae-goon(Sejo). Danjong yielded his king position to him in the end. Gye-Yoo coop separated scholars into two groups. One was upholding a cause and the other one was pursuing the reality. After a while there was a try to restore the Danjong's king position and authority. The loyalty of Sa-yook-shin(死六臣 : six members to support this try even sacrificing their lives) and the defection of the other group has become a main important historical topic that last for a long time. Sejo said "They(the six members) are treacherous subject at these days and will be loyal subjects in the later time". This became an evidence that led to the restoration of Danjong's original(King) position.

Even though he was suffered under the nickname of 'betrayed' but I think that we can not disregard all of his performance only due to this. The choice can differ per each contemporary situation and personal values.

We analyze his chinese poems into three main topics. 1) He desired the timing that wise king and good subject meet and work together. 2) He was very self-confident for his work and had good power to foresee the future. 3) He went through the 'Li-shi-Ae's coop(李施愛亂) and politics

*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15.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by the Confucians during Sung-jong's tenure. This made him felt skeptical about the performance that he achieved and the frailty of life. It is the main theme of this thesis that we reconstruct who he really was through tracking the historic records about him.

[Key Words] Shin, sook-joo(申叔舟), Sejo(世祖), Gye-Yoo coop(癸酉靖亂), loyalty, defection, meritorious retainer, submission to the powerful countries and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containment, try to restore the Danjong's king position and authority

